2014년 5월 12일(월) 날씨가 매우 맑고 바람이 분다.

어제 나의 언니가 결혼을 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30년을 함께 자란
동지이자,
인생의 선배이고,
학교와 사회의 멘토였으며,
내 인생의 모범 지침서였다.

부모님의 바람대로 올바르고 자랑스런 딸로 살던 언니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한국의 속박에 얽매이지 않고
평생 외국에서 살 줄 알았다.

느닷없는 결혼 소식이라,
한국 사회에 굴복하여 사는 것 같아
언니한텐 좀 실망했지만
사실 언니 결혼이 실감나지 않았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다.

딱히 언니나 나나 결혼에 대한 이상이 없었지만,
언니가 선택한 삶은 어릴 때부터 그려왔던 삶이랑은 분명 다르다.

그래서일까
드레스를 고르고 스튜디오를 선택할 때에도 따라다녔지만
언니가 결혼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함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언니는 신혼집으로
나는 나의 집으로 이사를 갈 때에도
언니의 결혼이 실감나지 않았다.

사실 어제 결혼식장에서도
나는 실감나지 않았다.

딸 둘 중에 하나는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여
한 남자를 만나 사랑하고
법적,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
결혼을 한다는 것은 참 대단하고 훌륭하며, 엄청난 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언니의 선택을 존중한다.
방금 언니한테서 카톡이 왔다.
두바이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나보다.
행복해 하는 언니를 보니, 나도 행복해진다.

내일은 언니 생일이다.
생일을 사랑하는 사람과 매력적인 이국에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의 최고의 황홀경을 느꼈으면 좋겠다.

결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니가 선택한 삶이 자신에게 행복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언니의 결혼이 막상 실감나지 않나보다.

오늘날처럼 행복한 기억이
언니의 긴 인생에 버팀목이 되었으면 한다.